

## 6월 19일 수요일 / 인도

5월 3일은 마니푸르에서 민족 간 종교 분쟁이 발발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폭력 사태로 메이테이족(힌두교도)과 쿠키족(기독교인) 사이에서 잔인한 살인과 총격, 폭동이 발생했습니다. 작년에 공개된 충격적인 영상 중 하나는 마니푸리 쿠키조 기독교 여성 두 명이 일부 남성들에 의해 경찰차에서 끌려 나오는 장면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폭도들에게 강간당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알려지고 관련 가해자가 더 밝혀지고 있는데 두 강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부가 마니푸르주의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하기를 기도합니다.

## 6월 20일 목요일 / 방글라데시

4월 말 무슬림 배경 신자인 샤하 미아와 그의 가족은 무슬림 이웃에게 심한 폭행을 당했고 집은 약탈당했습니다. 샤하 미아와 아들은 병원에 입원 중이며, 여성과 아이들은 폭력을 피해서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공격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피해 여성과 아이들에게 심터를 제공하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을 자책하며 좌절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용기와 희망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6월 21일 금요일 / 에리트레아

에리트레아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큰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투옥되는 것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투옥되면 고문을 당하고 굶주림에 시달리며 질병에 걸려도 대부분 아무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가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에리트레아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용감하고, 동시에 그들이 처한 상황을 염두에 두며 지혜롭고 분별력 있게하기를 기도합니다. 새로운 개종자들이 믿음 안에서 성숙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로움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 6월 22일 토요일 /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 5,170명의 기독교인은 신앙을 이유로 살해당했습니다. 1,500명(대략적 추산)의 기독교인은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2,714명의 기독교인들은 납치를 당했습니다. 미디어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 있는 기독교인을 향한 폭력을 충실하게 다루고 계속 나누기를 기도합니다. 정부가 법률전문가들과 정부 관리들을 잘 갖춰서 처벌할 것은 처벌하여 극단주의 이데올로기와 폭력에 대응하기를 기도합니다.

## 6월 23일 일요일 / 카메룬

2021년 카메룬 최북단에서 보고하람이 기독교인을 공격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인해 남편을 잃은 많은 미망인이 있습니다. 카메룬 최북단과 이

지역 전체에 살고 있는 미망인들이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카메룬 최북단의 안보 상황이 호전되기를 기도합니다.

## 6월 24일 월요일 / 콜롬비아

폭력, 극심한 빈곤, 불법 무장 단체의 존재는 콜롬비아 태평양 연안에 있는 살로몬 목사의 교회가 직면한 위협 중 일부입니다. 코카 재배, 마약 밀매 및 무기 밀매와 같은 불법 활동을 하는 단체가 이 지역을 지배합니다. 이 단체는 교회를 위협으로 여기며 감시합니다. 누구도 그 단체의 활동에 반대하는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예배에 스파이를 심고, 반대 의사를 밝힌 목회자에 대한 살해 위협을 하고, 기독교인 젊은이들을 강제 징집하며, 교회 내 여성 강간, 성전에 대한 공격, 심지어 목회자들에게 영향을 주기 위한 주술과 흑마법 행위 등을 합니다. 살로몬 목사의 교회는 감시받고 있으며 많은 사람이 두려움 때문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목사님의 가족과 사역이 박해 속에서도 굳건하기를 기도합니다.

## 6월 25일 화요일 / 콜롬비아

살로몬 목사는 작년부터 안정적인 직업을 갖지 못했습니다. 예전에는 목재 상인으로 일했지만, 불법 무장 단체에 의해 이 활동이 금지되어 가족을 부양할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이에 오픈도어에서는 살로몬 목사가 패션프루트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살로몬 목사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교회 사역에 도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 6월 26일 수요일 / 모리타니

모리타니에서 이슬람교 이외의 다른 신앙을 갖는 것은 불법이며 기독교 인임을 공개하면 종교법정에서 배교 혐의로 기소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의 경우 거의 불가합니다. 기독교 집회를 개최하는 외국인도 기소될 수 있고 동부 국경 지역에는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가 활동하면서 그곳의 기독교인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모리타니에서 비밀리에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6월 27일 목요일 / 부르키나파소

부르키나파소의 기독교인들은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마을, 교회, 일터에서 표적이 되어 살해당하고 수백 개의 교회가 강제로 폐쇄되고 많은 교회가 파괴되었습니다. 이들의 폭력을 피해 도망친 기독교인 100만 명은 국내 실향민이 되었습니다.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포기하도록 엄청난 압박을 받습니다. 심한 박해로 몸과 마음이 다친 성도들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을 더욱 붙잡아서 믿음이 오히려 굳건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 6월 28일 금요일 / 라오스

라오스는 대부분의 교회 모임을 불법 집회로 간주하고 기독교인들을 철저하게 감시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사회에서도 차별과 불이익을 당합니다. 이런 점이 기독교인 소년과 남성을 마약 중독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사회에서 차별과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 6월 29일 토요일 / 미얀마

로힝야족의 극단주의 단체들은 로힝야족 기독교 여성들을 납치하고 이슬람교 남성과 강제 결혼을 시키고 이들을 이슬람교로 개종시키려고 시도합니다. 군대도 기독교 여성들, 특히 소수 민족에게 속한 이들에 추가적인 위협을 합니다. 기독교인이 지배적인 카친주에 있는 여성들은 남자 상속인을 낳기 위해 '신부로서' 계속 중국으로 몰래 팔려 가고 있습니다. 납치와 강제 결혼, 이슬람교로 개종시키려는 모든 시도가 중단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독교 여성들이 위협적인 상황에서 보호받기를 기도합니다.

## 6월 30일 일요일 / 소말리아

소말리아는 국민 대다수가 무슬림이며 기독교인은 가족과 공동체에 의해 심각한 박해를 받고 알샤바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에 의해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심한 박해의 고통과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며 신앙을 지켜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늘 함께하고 성도 개인과 교회 모임이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박해 받는 교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시는 귀한 분들에게 대신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기도월력의 기도제목들은 한국오픈도어 카카오톡채널에서 매일 보실 수 있습니다.

실물 기도월력은 홈페이지 요청하기 월간 『오픈도어』OpenDoors 신청 또는 한국오픈도어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 오픈도어선교회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02153 서울시 중랑구 봉우재로 133, 화성빌딩 2층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esk@opendoors.or.kr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카카오톡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등록번호-종량, 라00042 부록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 마태복음 16장 18절 -



Ch



카톡에서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채널을 추가하세요

### 6월 1일 토요일 / 이란

이만(Iman) 목사는 이란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는 신앙 때문에 투옥되었으나 전도를 금지하는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23명의 개종자를 얻었습니다. 고난의 현장에서도 함께 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신앙 때문에 투옥된 기독교 신자들이 더욱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함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6월 2일 일요일 / 콜롬비아

콜롬비아 카우카주의 원주민 기독교 공동체 지도자 후아나는 기독교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며 주로 아이들을 위한 기도를 요청합니다. 원주민은 전통적인 교육을 유지하기를 원했고 기독교 성전을 폐쇄하고 추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아이들이 계속해서 기독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6월 3일 월요일 / 나이지리아

치북에서 레아 샤리부와 같은 어린 기독교 여학생들이 납치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소녀들이 풀려났지만, 여전히 생사를 알 수 없는 소녀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납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나이지리아 정부에 행동을 촉구해야 합니다. 나이지리아 정부가 포로로 잡혀 있는 치북 소녀들을 포함하여 보고하람이 억류하고 있는 인질들을 석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를 기도합니다.

### 6월 4일 화요일 / 이라크

2014년 ISIS(이슬람 근본주의 국제범죄 단체)에 의해 점령되어 십자가와 다른 모든 기독교 상징물이 파괴당했던 이라크 모술시의 한 교회가 2024년 4월 5일 성대한 축하 예배와 함께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해당 교회가 회복의 큰 희망의 상징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술에 평화와 안정이 돌아오고 기독교인들이 다시 고향과 도시로 돌아가 예전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6월 5일 수요일 /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의 현지 목회자들은 교회 활동, 특히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한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 사회 지도자들은 이를 기회로 지역 사회에서 소수인 신자들을 통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조이센 목사가 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친다는 이유로 지역의 힌두교도와 불교도들이 불만을 품고 조이센 목사의 작은 가게를 파괴하고 약탈했습니다. 조이센 목사와 그의 가족, 신자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신자들이 현명하게 상황에 대처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이어가기를 기도합니다.

### 6월 6일 목요일 / 나이지리아

보고하람 테러리스트들에게 수년간 포로로 잡혀 있던 치북 소녀 리디아 사이먼이 나이지리아 군대에 의해 구출되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를 풀어주신 것처럼 모두를 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직 풀려나지 못한 모든 소녀가 가족에게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6월 7일 금요일 / 이란

이란은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은 누구나 체포되어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다. 이란의 미나 카자비(60세)는 가정교회를 이끌었다는 이유로 테헤란의 에빈 교도소에서 6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개종한 신자입니다. 그녀는 관절염을 앓고 있으며 절뚝거리며 걷고 있습니다. 그녀는 고통스럽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가끔 진통제만 투여받고 있다고 합니다. 미나 자매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6월 8일 토요일 / 이집트

4월 23일 화요일 저녁 10시 30분경, 수많은 무슬림이 알파와키르 마을에 있는 콕트 신자들의 집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일부 집을 약탈하고 불을 질렀습니다. 이 마을에는 교회가 없으며 기독교인들이 때때로 가정집에 모여 기도합니다. 공격을 받기 전 콕트 신자들은 경찰에 보호를 요청했지만, 공격 한 시간 후 경찰이 도착해 상황을 통제했습니다. 일부 공격자들은 체포되었으며, 현재도 마을에 보안군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험과 폭력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피난처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6월 9일 일요일 / 이집트

알파와키르 마을에서 신자들의 집에 대한 공격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 즉 집과 소지품을 잃은 콕트 신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정신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을 이겨낼 힘과 회복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공격을 선동하고 실행한 책임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당국의 수사과 법적 절차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6월 10일 월요일 / 방글라데시

기독교인 두둘은 일하러 오고 가는 길에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잔혹하게 구타당한 후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전 보다는 훨씬 나아졌지만,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두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박해자들은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 두둘

과 가족을 고용하지 말고 얘기하지 말라고 부추겼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에게 일용 노동일을 시켜주는 사람이 없어서 생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에게 일자리가 주어지기를 기도합니다.

### 6월 11일 화요일 / 스리랑카

스리랑카에서 기독교는 소수 종교이며 신자들은 흔히 불교 사찰 또는 힌두교 사원에 둘러싸여 있는 교회에 참석합니다. 기독교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교회 근처에 모여 신자들이 교회 건물에 출입하거나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또는 큰 소리를 내며 주일 예배를 방해합니다. 교회 울타리와 교회 간판 등을 훼손하여 재산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마을 사람들의 반대와 재물 파손 행위가 중단되기를 기도합니다. 신자들이 여러 가지 방해와 위협에도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계속해서 교회에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 6월 12일 수요일 /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에서 청각 장애인이라는 것은 신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겨지며, 거부와 차별은 일상의 일부가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던 잘릴라는 자신이 결함이 있고 무가치하다고 느꼈고 좋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를 받고 자신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잘릴라는 19살 때 교회를 처음 방문했고 예수님 안에서 본인이 사랑받고 있고, 가치 있고, 결함이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잘릴라와 같은 청각 장애인 신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6월 13일 목요일 / 중앙아시아

잘릴라는 19살에 개종한 직후, 8살부터 앓고 있던 천식의 모든 징후가 사라지고 천식 발작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적적인 치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식을 앓고 있고 무슬림인 그녀의 형제들은 그녀의 신앙을 여전히 조롱합니다. 그녀는 형제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형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 6월 14일 금요일 / 인도

하리 목사는 회중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있었습니다. 종교적 극단주의자들이 경찰들과 함께 예배에 들어닥쳐서 신자들을 위협하고 교회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들은 하리 목사의 교회를 폐쇄했습니다. 지금은 신자들과 소수로 집에서 비밀리에 모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고 고백하는 하리 목사의 고백처럼 하리 목사와 신자들의 믿음이 박해 가운데서도 더욱 굳건하기를 기도합니다. 비밀리에 모이는 기독교인들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 6월 15일 토요일 / 차드

5월 6일에 차드에서는 군사 통치 후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차드가 선거 후에도 평화를 유지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일이 정치적 결정이나 선거 활동을 위한 날로 지정되지 않고 기독교인들에게 예배드리 는 날로 존중받기를 기도합니다. 기독교 정치 지도자와 공동체가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리고 정치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용기를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빛과 소금의 근원이 될 차드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 6월 16일 일요일 / 북한

북한이 북한 젊은이들에 대한 반미, 반제국주의 사상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데일리NK가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다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러시아와 북한 간의 강력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의 세뇌된 남녀노소 모든 사람의 마음과 정신, 영혼을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북한에 있는 약 40만 명의 비밀 신자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6월 17일 월요일 / 북한

북한에서는 식량을 비롯하여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최근 기독교인을 포함한 많은 시민은 코로나19가 다시 돌아와 희생자를 만들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는 많은 민간인들이 ‘계절성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통, 근육통, 기침 등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러한 질병이 단순히 전염성이 있는 감기나 독감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19일 수도 있습니다. 증상은 똑같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약이 없거나 사람들이 약을 살 형편이 안 됩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제대로 된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6월 18일 화요일 / 볼리비아

볼리비아 정부는 2009년부터 약용으로 코카 재배를 합법화했습니다. 18살부터 코카를 재배해 왔던 농부 게르만은 기독교로 개종한 후 코카 생산이 마약 생산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더 이상 코카를 재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목회를 시작한 후에는 교회에서 20%의 재정 지원을 받지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다른 수입원을 찾아야 했습니다. 2022년 그는 오픈도어의 소규모 사업 창업 훈련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닭과 계란을 기르고 판매하는 사업 아이디어로 오픈도어의 경제 개발 프로젝트 중 하나에 지원하여 선정되었습니다. 그의 사업은 번창하여 그의 가족을 부양하고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픈도어의 이와 같은 사역이 목회자 가정에 축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